

기사판

‘소박한 밥상’ 저녁공양 인드라광명
공동체는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후원 의 밥’을 4월 15일 저녁 7시에 서울 신촌 아트레온 토즈에서 연다. 저녁공양 및 한생명, 작은학교, 불교생협, 교육원의 장기지랑 시간이 준비돼 있다. 후원금 접수는 1주와 10만원. (02) 733-1884

파라미타 연수생 모집 파라미타청소년회회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열고 연수지원제로 활동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18-30세 이하의 재학생 및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1부와 자기소개서 1부이다. (02) 723-6167

경락마사지 전문봉사자 교육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락마사지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에 교육하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02) 723-5101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의 이론과 현장답사를 겸한 박물관 문화대학 강좌(사진)를 개설한다. 강의는 4월 17일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중간 중간 사찰 현장답사도 결합 예정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월정사성보박물관으로 수강신청서 1통 및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된다. (033) 334-1817

20년 상식 퍼즐 정답

사	미	계	전	라	엄	동	설	한
쌍		요		라				
수	경			산	파			
		음	능			죽		
		악	인	악	과	지		
			어	대	물	세		



신선놀음 하듯 꽃 풍경도 즐기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경주 남산

꽃망을 톡톡...봄햇살의 유혹

한국관광공사 추천 4월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여행지 4곳



안성 - 천년고찰과 남사당 바우덕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정통사, 석남사, 칠장사 등 천년고찰이 있는 경기도 안성은 어떨까. 가족과 그림 같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고찰에서 참배를 한 후 안성의 상징인 남사당 풍물놀이를 구경하는 것

도 좋을 것 같다. 남사당 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는 40년 전통의 강선영 무용단이 펼쳐진 태평무(중요무형문화제 제29호)와 남사당 풍물놀이 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와 6시 30분에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10월 말까지 열릴 예정이다.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068



경주 남산 - 지붕없는 박물관 풍광도 볼모금

봄에는 벚꽃도 유명하지만 모처럼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내들이에 나섰다 사람과 차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었는지. 이번 주말에는 산에 오르며 저 멀리 발아래 펼쳐진 벚꽃들을 유유히 감상하자. 경주 남산에 올라 볼 수 있는 경주의 배리평야와 그 일대의 꽃이 만발한 4월 풍경을 한 폭의 그림이다. 특히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

릴 정도로 많은 불상과 유적이 남아있다. 배리석불입상에서 시작해 심름을 거치는 서남산 코스에는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마애석가여래 좌상 등 가지각색의 부처상을 만날 수 있다. 동남산 코스는 보리사의 약사여래와 사방면에 탑과 부처상이 새겨진 부처바위, 감실 부처등을 볼 수 있다. 코스가 험난하지 않아 아이들과 오르기에 제격이다.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390



제천 청풍호반 - 맑은 바람 맑은 달 그리고 벚꽃

제천시에 있는 청풍호반은 1978년 시작된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생겨난 호수다. 청풍문화재단지를 정점으로 비봉산과 금수산을 끼고, 호반 입구에서 청풍면 소재지까지 13km길이로 빛나무가 이어져 있어 가족들과 주말에 소풍을 나가기 제격이다. 올해 9번째 개최되는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4월 16일, 17일 양일간 본행사

가 진행되고, 행사기간 중 하루는 청풍문화재단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단지 내에는 SBS '대망' 촬영소와 고려 충숙왕(1317) 때의 한벽루(보물 528호)가 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나와 호반 쪽으로 조금 더 걸어 내려가면 청풍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의 절경을 빠짐없이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제천 10경과 단양 8경 중 하나인 옥수봉은 충주호에서 볼 수 있는 절경 중 하나다.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043)640-5680



완도 - '해상왕' 장보고 전설을 찾아

최근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해상왕' 장보고(790~846)의 일생을 다루면서, 덩달아 완도에 마련된 드라마 세트장이 여행객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3만평 부지에 신라왕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완도읍 군외면 불목리 세트장에는 설명과 이도형상단이 머물던 집과 상가, 정화여각 등 40여 동의 기와집이 수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늘어섰고 수로

에는 배도 떠 있다. 호수처럼 잔잔한 다도해의 수평선이 펼쳐진 시원한 소쇄포에는 저잣거리, 군영마사, 망루 등의 청해진 본영과 신라왕궁을 재현해 놓았다. 국내 최초 도지정 문화재가 됐을 정도로 사실적인 두 곳의 세트장에서는 현재 월·화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50-5208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3일 밤낮 견고도 씩씩하고 당당한...

영화 감독: 구성주 출연: 고두심, 김예령 등
개봉: 4월 7일 등급: 전체관람가

영화 '엄마'에서 고두심이 마네팔을 낳던 마흔 살, 그해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이후 네 발 달린 운송수단 근처에는 걸어도 못하는 못한 겁쟁이(?) 엄마다. 하지만 마네팔 결혼은 꼭 눈에 담고 싶어 차로 1시간 반이던 갈 거리를 미련 갖게도 꼬박 3일 밤낮을 걸어가 '막무간대 성격이지만 정겨운' 엄마의 삶을 해남에서 목포까지 150리 길을 걷는 동안의 과정으로 그려냈다.

영화 '엄마'는 되물었다. 3일 밤낮을 걷는 엄마의 씩씩함과 당당함은 인내가 아니라 선택이자 용기가 아니냐고. 어머니의 삶 속에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힘'이 있다. '잘난' 엄마든 '못난' 엄마든 엄마는 늘, 언제나 엄마다. 영화 '엄마'가 영화로서 작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은 전문 평론가들의 몫이다. 이것을 제겨 놓는다면, 내 엄마를 생각하며 한번쯤 볼만한 영화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노병길 기자 sasman@buddhapia.com

공연

우주 창조의 신비 선율로

인 플루트 연주자 밀린드 다테 명상음악 콘서트



밀린드 다테.

우주 창조의 신비와 소멸을 인도 전통 나무 플루트 '반수리'의 운율에 담아 즉흥연주로 풀어내는 공연이 열린다.

최고의 반수리 명인이자 우리나라에도 명상음악가로 잘 알려진 밀린드 다테가 내한. 충무아트홀에서 4월 11일 개관기념 페스티벌로 '아침의 탄생' 명상음악 콘서트를 갖는다.

1부 '아침의 탄생'에서는 해맑은 태고의 자연과 잉태되는 생명을 형상화한 명상적 이미지가 강한 즉흥선율을 펼치고 2부 '혼돈'에서는 창조의 신이자 파괴의 신인 시바를 음악으로 그려내 우주가 다시 혼돈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명상 음악의 본질은 소리를 넘어선 곳에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밀린드 다테는 인도 푸나 출신의 세계적 명상음악가로, 오소 라즈니쉬 아쉬람 음악의 중심 멤버로 활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음반 '아유타에서 불어온 바람(Wind from Ayuta)'의 반수리 연주로 처음 소개됐다. 인도와 한국의 퓨전그룹 '쌍기 프렌즈'의 단원이기도 하며 송광사, 조계사 등에서 연주를 갖고, 티베트 명상음악가인 나왕 케츠크와 협연하여 명상음악의 진수를 들려준 바 있다. (02)2230-6631 이은비 기자

전시

고구려 문화 베일을 벗다

남북공동기획,北市 유물 250여점 공수



연가 7년명 금동일관삼존상.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북한 소재 고구려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중도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기획으로 준비한 '고구려대탐험전'이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가7년명금동일관삼존상' 등 남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양식의 고구려 불상 외에도 평양에서 직접 공수해온 약 25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공개된다. 그 중 '해돋음무늬금동장식'은 중앙에 구슬을 박은 두 겹의 동그란 테 속에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까마귀가 새겨져 있는 고구려의 대표적 금속 공예품으로, 고구려인들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막새 기와, 단지, 시루, 말뚝자 등 생활문화 유물을 비롯해 고구려인의 고분 축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악리3호무덤' 등이 실물크기로 복원, 전시된다. 전시장 밖에서는 고구려 의상을 입고 수레에 올라타 활을 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구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의 강인한 민족정신과 예술성을 알리고, 투철한 역사관과 민족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42)601-7894-6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클릭!
불교문화상품

요로로 배게

배게로도 등받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요로로 배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학생이나 목이 빠진 직장인에게 좋다. 부드러운 탄력이 있는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졌으며 청녹색, 진분홍색의 두 가지 색상이 있다. 일반형 2만 6천원, 고급형 3만 5천원이다.

방송 프로그램

BBS 8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창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4월 07:00 아침저널
5월 17:10 무명을 밝히고
6월 10:05 신형상담실
7월 06:20 새로운 인생
8월 14:05 음악의 마을
9월 16:10 BBS 초대석
10월 09:05 영화음악실

B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4월 07:50 명상음악산책
5월 15:10 명상음악
6월 23:30 한국의 명찰
7월 17:30 산중대담
8월 17:20 오늘은 좋은날
9월 16:10 부처님경전이야기
10월 15:3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3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특집 해외불교성지순례(태국) 4월 8일 저녁 7:30~8:00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태국, 불교사원인 와트(Wat)와 주요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활을 통해 태국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짚어본다.